

S쌍용건설

서울시 중구 회현동 주상복합현장



- 공사명 : 회현구역 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중구 회현동 주상복합 신축현장
- 발주자 : (주)해창
- 감리자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휴먼텍코리아
- 설계자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공사기간 : 2007. 1.26 ~ 2010. 6.30(41개월)
- 공사규모 : 2개동, 지하7층~지상33층,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6,876M²(2,080평) 건폐율 55.82% 건축면적 2,957M²(894평)
용적율 980.26% 연면적 79,978M²(24,193평) 주차대수 658대
53, 59, 61, 65 등 6개평형 총236세대.

서울을 대표하는 명산 남산의 권문 남산3호 터널 입구에 그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서울을 대변하는 건축물로 태어나고자 마무리가 한창인 건축현장이 있다.

중구 회현동 주상복합현장은 쌍용건설이 지난 2007년 착공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하고 있는 현장으로 서울도심을 대변하는 기념비적 건축물
즉, LAND MARK로 자리 잡게 하고자 최범중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21명의 쌍용인파 40여 협력사가 하나가 되어 2010년 6월 준공을 위해 오늘도 힘찬 전진을 하고 있다.

쌍용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중구 회현동 주상복합현장은 그간 국내·외 언론보도를 통해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현장이다. 박구준 부회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지난 6월, 최범중 현장소장을 비롯한 쌍용인들은 준공일자 준수는 물론 완벽시공을 위해 매우 분주한 모습이었다.

건설안전기술사이며, 건축시공기술사인 최범중 소장은 매일 180명 이상의 근로자가 투입되고 있는 현장이기에 안전관리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으며 특히, 도심 한가운데서 진행되는 지역적 특수상황 관계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제 1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안전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최근의 건설현장은 고층화, 대형화는 물론 다양하고 복잡한 공사 수행으로 도심권의 주변상황 및 관련법규는 물론 각종 민원 발생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쌍용건설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함은 물론 인간존중의 기업이념을 실천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삶의 터전을 창조하기 위해 전 조직 구성원의 능동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자율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사전 위험성 평가를 통한 지속적 재해예방을 통해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건설현장은 여러 복합적인 공정의 동시작업과 고정된 건설



● 현장을 방문한 박구준 부회장에게 도심자공사의 특별안전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범중 현장소장.

인력 투입의 어려움으로 인한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장 만들기를 위해 정리정돈의 생활화와 안전기능의 습관화를 매일 안전 조회시 지속적으로 반복 강조한 결과 작업 중·후의 작업부산물도 작업장 주변에 방치되는 것의 사전 제거 가능했으며, 또한 매주 1회 정리정돈의 날 지정으로 나의 작업장은 내가 스스로 정리정돈 한다는 자율의식도 생겨났다고 설명한다.

S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운영

대형건설사들은 공사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건설사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기에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ERP시스템을 구축해 전 현장이

S 상용건설



▶ 앞자 그 위를 드리고 있는 상용 중구 회관동 주상복합현장을 세김으로선 최광동 회장(2명)을 비롯한 상용인들과 카구도 류의장